

《삼국유사》에서 단군관계자료를 실은 《고기》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후보원사 교수 박사 오희복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화와 전설은 그것이 나온 시기의 사회상과 여러가지 역사적사건, 사실을 옳게 해명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289페이지)

13세기 후반기 일연(1206—1289)에 의해 편찬된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이라는 항목아래에 《고기》의 자료에 토대하여 고조선의 성립과정을 설화적으로 서술하면서 단군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고조선의 건립자 단군에 대한 자료는 우리 나라에서 원시사회가 해체되고 계급사회가 출현하던 시기의 역사적사실을 반영하고있어 지난 기간 역사학과 언어학계, 문학사부문에 많이 논의되였다.

문학사부문에서는 《조선고대중세문학》 등 도서들에서 우리 나라 원시 및 고대문학의 시원을 단군에 대한 이야기에서 찾고 그 내용을 해설하였으며 언어학부문에서는 《고조선 및 고구려의 인명과 지명》 등 도서들에서 우리 나라 고대언어관계자료를 《삼국유사》의 《고조선》항목에서 취하였다. 그리고 역사학부문에서는 《조선단대사》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고대 역사를 해설한 도서들에서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의 기록에 토대하여 내용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도서들은 각기 해당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필자들의 연구성과를 서술한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빛내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고대시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보다 깊이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아직 더 논의해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

론문에서는 《삼국유사》의 《고조선》항목에서 단군에 대하여 소개한 문헌인 《고기》가 어떤 책이며 《단군》에 대한 서로 다른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단군에 대한 소개가 어떤 생활을 반영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해설하려고 한다.

2. 본론

2.1. 단군에 대한 자료를 실은 《고기》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에 대한 자료는 《기이》편의 《고조선》항목에 인용된 《고기》의 기사에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고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이 아니라 간접전달의 방법으로

고조선의 건립자인 단군의 출생과정과 그의 아버지 환웅이 하늘의 신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과정을 설화적으로 펼쳐보이였다.

그러면 《삼국유사》에서 단군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리용한 《고기》란 어떤 문헌인가? 일반적으로 《고기》란 《옛 기록》을 의미한다.

1145년에 구《삼국사》를 개작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김부식(1075-1151)은 구《삼국사》를 《고기》라고 하였다.*

* 《또한 그 〈고기〉는 문장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적이 빠지고 없어졌다.》(又其古記文字蕪拙 事迹闕亡)(《삼국사기》진삼국사기표)

《〈고기〉에 이르기를 주몽이 부여로부터 난을 피하여 졸본에 이르렀다고 한다.》(古記云 朱蒙自扶餘逃難 至卒本)(《삼국사기》권37 지리 4)

리규보(1168-1241)의 작품 《동명왕편》(東明王篇)의 서문에 의하면 김부식은 명백히 구《삼국사》를 개작하여 《삼국사기》를 다시 편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참작한것은 《고기》이며 그것은 《문장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적이 빠지고 없어졌다.》고 하였다.

* 《지난 계축년(1193년에 해당함-인용자)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서 〈동명왕본기〉를 보니 그 신비롭고 기이한 자취가 세상에서 말하는것을 룡가하였다. … 김부식이 국사를 거듭 편찬하면서 그 사실을 자못 생략하였다.》(越癸丑四月得舊三國史 見東明王本記 其神異之迹踰世之所說者…金公富軾重撰國史 頗略其事)(《동국리상국집》권3 《동명왕편병서》)

그러나 지난날에 이루어진 문헌들을 범박하게 《고기》 즉 《옛 기록》이라고 한다면 민족고전에는 그 종류가 대단히 많으며 내용 또한 실로 다양하다.

실례로 《삼국유사》에는 고조선, 부여의 사실을 기록한 《고기》, 후기신라시기의 사실을 담은 《고기》, 우리 나라에 불교가 전파된 과정을 기록한 《고기》 등 여러 《고기》가 있는데 《보장봉로 보덕이암》에 리용된 《고기》는 《고(구)려고기》라고 명명하였고 《태종춘추공》에 인용된 《고기》는 《백제고기》라고 하였다.

* 《고구려문학유산》 20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5(2016).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고기》란 개별적인 문헌의 이름인것이 아니라 《옛 기록》이라는 의미로 범박하게 쓴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의 사실을 옮겨놓으면서 리용한 《고기》도 결국 옛 기록의 하나였다고 인정하게 된다.

고조선, 단군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옛 기록으로서 고려시기에 전해진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단군기》(檀君記)와 《동명기》(東明記), 《단군본기》(檀君本記)와 《동명본기》(東明本記)가 있었다.*

* 《〈단군기〉에 이르기를 아들을 낳은것이 있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다.》(檀君記云有産子名曰夫婁)(《삼국유사》권1 기이1 《고구려》)

《또한 〈동명기〉에 이르기를 졸본성은 지역이 말갈과 잇달랐다.》(又東明記云卒本城地連靺鞨)(《삼국유사》권1 기이2 《말갈발해》)

《〈단군본기〉에서 말하기를 〈비서갑 하백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다.〉(檀君本紀曰與非西岬河伯之女婚而生男 名夫婁)(《제왕운기》하)

《동명본기》에서 말하기를 〈부여왕 부루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 산천에 제사하여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東明本紀曰扶餘王夫妻老無子 祭山川求嗣)(우와 같음)

이 문헌들은 다같이 고조선, 단군에 대하여 기록하였지만 여러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고 볼수 있다.

실례로 북부여왕 부루가 단군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일연은 《단군기》를 참고하여 이렇게 썼다.

《단군기》에 이르기를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아들을 낳은것이 있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다.》(壇君記云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 名曰夫妻)(《삼국유사》 권1 기이 1 《고구려》)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리승휴(1224-1300)는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단군본기》에서 말하기를 비서잡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사내를 낳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다.》(檀君本紀曰與非西岬河伯之女 婚而生男 名曰夫妻)(《제왕운기》 하)

이처럼 같은 역사적사실을 기록하였으나 두 기록은 차이를 가지고있다. 《단군기》에서는 《단군》을 《壇君》이라고 쓰고 《단군본기》에서는 《檀君》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백에 대해서도 《단군기》에서는 《서하 하백》이라고 하였고 《단군본기》에서는 《비서잡 하백》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단군기》와 《단군본기》가 다같이 고조선, 단군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이었으나 고장이름이나 역사적사실에 대한 기록, 《단군》에 대한 이해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로 하여 《단군기》를 리용한 《삼국유사》와 《단군본기》를 리용한 《제왕운기》사이에는 내용서술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실례로 《삼국유사》에서는 《태백산》을 《太伯山》이라고 쓰고 하늘에서 거느리고 내려온 3천명을 《무리》(徒)라고 하였으며 《태백산마루의 신비로운 단의 나무아래에 내려》(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왔고 이름을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고 하였으며 환웅이 사람의 몸으로 변(假化)하여 곰녀인과 《혼인》하여 단군(壇君)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왕운기》에서는 《태백산》을 《太白山》이라고 쓰고 하늘에서 내려온것이 《귀신》(鬼)이라고 하였고 《태백산마루의 신비로운 박달나무아래에 내려》(降太白山頂神壇樹下)왔는데 이름이 《단웅천왕》(檀雄天王)이라고 하였으며 《단웅》이 손녀를 시켜서 약을 먹고 사람의 몸으로 되게 하여 박달나무신과 혼인하여 단군(壇君)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인용한 《단군기》에서는 단군의 나이를 1908살이라고 하였고 임금으로 있는 기간은 1500년이라고 하였으나 《제왕운기》에서 인용한 《단군본기》에서는 단군의 나이는 말하지 않고 통치기간만을 1038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군기》와 《단군본기》의 내용서술에서 서로 다른 측면이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 《御國一千五百年…壽一千九百八歲》(《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

《理一千三十八年 入阿斯達山爲神》(《제왕운기》 하)

일연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고조선, 단군관계자료를 《단군기》에 토대하여 기록하였으므로 《단군》을 철저히 《壇君》으로 표기하였다. 그래서 고구려의 동명왕을 《壇君》의 아

들이라고 하였던것이다.*

* 《姓高名朱蒙 一作鄒蒙 壇君之子》(《삼국유사》 권1 《왕력》 고려)

현재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단군기》와 《단군본기》를 대조하여보면 《삼국유사》에 리용된 《단군기》가 내용이 풍부하며 더 설화적이다.

2.2. 《단군》에 대한 두가지 표기

우리 민족의 첫 고대국가는 《조선》이였고 그 시조를 《단군》이라고 인정하는 견해는 오래전부터 세상에 널리 공인되어있다.

그러나 《단군》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되어 불리워진 이름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오랜 문헌들에 《단군》이라는 이름이 두가지로 표기되어있으며 그에 대한 이해가 차이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라고 밝혀주시었다.

고조선시기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려면 그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폭넓게 조사하고 그것들을 옳바른 원칙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깊이있게 따져보아야 한다.

지난 시기 일부 학자들은 《단군》에 대하여 후세에 우리 선조들이 한자를 쓰게 되면서 민족의 원시조를 가리키던 고유한 우리 말을 리두식으로 표기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단군은 처음 박달족의 우두머리로 있다가 나라를 세우고 임금으로 되어 박달(배달)임금으로 불리웠다고 하면서 결국 단군이란 칭호속에는 태양의 후손, 하늘이 낸 임금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해설은 몇가지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것이 있다.

무엇보다먼저 지난날 한자를 리용하여 우리 말을 표기하는 독특한 서사방식인 리두에서 초기에는 우리 말 두음절단어를 하나의 한자로 표기한 실례를 찾아보기 어려운것이다.

리두식서사방식은 처음 생겨난 후로 비교적 오랜 기간 쓰여왔다. 그래서 리두를 표기방식의 변화발전과정에 따라 초기리두, 리찰, 향찰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리두는 고구려때에 발생한것으로 인정하고있다. 고구려때의 리두는 리두식표기방식에서 초기리두의 단계에 해당한다.

우리 말과 한문의 언어적차이는 심하다. 뜻글자인 한자는 음이 기본인것이 아니라 뜻이 기본인 음절글자이며 우리 말의 발음과 한자의 음은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한자를 가지고 우리 말을 기록하면서 철저히 우리 말의 어음과 단어의 형태를 정확히 기록하는데 기본을 두고 리두식표기를 리용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초기리두단계의 자료들에서는 우리 말의 두음절단어를 하나의 한자로 표기한 실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초기리두단계에서는 대체로 한자의 음으로 우리 말을 기록하였으며 흔히 우리 말 단어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것이 특징적이다.

리두식표기의 이러한 특징을 언어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있다.

《리두식표기는 비록 한자로 적혀있으나 그 표기원리와 읽는 법이 한문식표기와 다르며 특징적인것은 표기된 대상이 어디까지나 당시의 우리 말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

은 비록 한자로 적혀있다고 하여도 결코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 말 어휘를 표기한것이다.》(《고조선 및 고구려의 인명과 지명》 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2(2013).)

여기서 우리 말이란 리두식표기가 이루어질 때 우리 인민들이 사용한 입말이다.

언어는 사회력사적산물로서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언어의 변화는 어음체계와 어휘형태, 문법구조 등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재 우리 말에서 쓰이는 《박달나무》를 원시사회나 고대시기에도 오늘처럼 《박달나무》라고 불렀다고 하는것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말 《박달》을 《檀》이라고 한 글자로 표기하였다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전해지는 초기리두관계자료들을 보면 우리 말 두음절단어는 대체로 한자로도 두 글자로 표기하였다. 실례로 《삼국유사》에서 세나라초기의 사람이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朱蒙(鄒蒙), 累利(孺留), 味留 — 고구려
溫祚, 多婁, 已婁 — 백제
南解, 弩禮, 祗味 — 전기신라
首露, 居登, 麻品 — 가야

이러한 표기는 한자의 음을 리용하여 우리 말을 기록한 형태이다.

한자음을 가지고 우리 말을 표기할 때 한자의 음만으로는 우리 말을 정확히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 독특한 표기방식을 리용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한자음의 성모나 운미를 가지고 우리 말의 어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關英井<一作娥利英井>》(《삼국유사》 권1 《혁거세왕》)
《仇乙峴<一名屈?>》(《삼국사기》 권37 지리4)

여기서 《關》을 《娥利》로, 《屈》을 《仇乙》로 표기한것은 한자음을 가지고서는 우리 말을 그대로 정확히 기록할수 없으므로 한자의 성모와 운미를 가지고 우리 말을 표기하는 독특한 방식이었다.

초기리두단계에서는 우리 말 단어를 어음과 형태에서 그대로 정확히 표기하는데 기본을 두었다. 결국 우리 선조들은 우리 말을 정확히 기록하는데 기본을 두고 한자음을 리용하였던것이다.

한자의 뜻을 가지고 우리 말을 기록하는 방식은 리두의 사용과정으로 보면 비교적 뒤날에 리용되었다.

그렇다면 《단군》을 《檀君》으로 표기한 시기는 언제인가? 이것이 무엇보다 논의의 대상으로 된다.

다음으로 《檀君》의 《檀》을 고조선시기의 우리 말 《박달》에 대한 리두식표기라고 하는것은 우리 말에 대한 역사언어학적견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것이다.

우리 말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속에서는 우리 말에서 끝소리자음 즉 받침은 후세에 발생한것으로 인정하며 세나라시기만 하여도 끝소리자음이 쓰이지 않았다고 한다.

《자음으로 소리마디의 끝을 맺는 받침소리현상은 조선말 말소리의 매우 특징적인 현

상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시기(세나라시기를 말함—인용자)의 리두식표기자료에는 세나라에서 다같이 이러한 받침소리현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있었다. 다시말하여 모든 소리마디는 언제나 다 모음으로만 끝나는 열린마디로 되어있었다.》(《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112.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언어학자들은 세나라시기의 우리 말에는 받침소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세나라시기의 리두식표기자료에는 받침소리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고있다.

하다면 세나라시기이전인 고조선때에 《박달》이라는 말을 발음할수 있었으며 《檀》을 《박달》로 읽을수 있었겠는가.

지난 시기 일부 학자들은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의 자료를 절대시하면서 《단군》(檀君)의 《단》(檀)이 《박달》을 의미하고 《군》(君)은 《임금》을 이르는 말인데 《박》은 《밝》과 통하며 《달》은 《산》의 고대어이므로 《박달》은 《밝은 산》을 이르는 말로 해석할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언어학적견지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다.

《단군》을 《박달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박》이 《밝》과 통한다고 하는데 대하여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박〉이 〈밝다〉의 옛날말 말뿌리로 된다고 하는 주장은 언어사적견지에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것이라고 할수 있다.》(《고조선 및 고구려의 인명과 지명》 3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2(2013).)

결국 《단군》을 《檀君》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밝은 임금》으로 해석하는것은 언어사적견지에서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주장이다.

도서 《고조선 및 고구려의 인명과 지명》에서는 표기방법, 어휘형태, 어음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단군》을 《밝은 임금》으로 해독하는것을 부정하였다.

다음으로 《단군》을 《檀君》으로 인정하고 《檀君》을 《박달임금》에 대한 리두식표기라고 보는것은 문헌자료에 대한 이해에서도 일정한 문제점이 있다는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단군관계기사로서는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단군기》와 《제왕운기》에서 인용한 《단군본기》 두가지 기록이 있다. 두 기록가운데서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고 분량도 많은것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단군기》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고조선의 건국과정, 단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대체로 《삼국유사》에 인용된 《단군기》를 리용하고있다.

그렇다면 《단군》의 명칭만은 어째서 《삼국유사》에 인용된 《단군기》를 외면하고 《제왕운기》의 《단군본기》만을 중시하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된다.

만일 《단군》을 표기함에 있어서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만을 인정한다면 《삼국유사》에 인용된 《단군기》의 기록은 무시하여도 되는가. 이에 대한 해명도 반드시 있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단군》에 대한 표기를 《檀君》으로 하는가 혹은 《壇君》으로 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되고 그의 사회적지위도 다르게 설명되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일부 학자들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단군기》를 기준으로 삼아 《壇君》을 《단군》에 대한 표기로 인정하고 《단군》(檀君)은 《지상의 군주》라는 뜻으로서 음역인 리두식표기 《壇》과 한문식표현 《君》의 결합으로 된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壇》은 땅을 의미하고 《君》

은 임금의 뜻이므로 《단군》이란 《땅 위의 임금》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단군》의 표기를 어떻게 하고 이해하는가 하는데 따라 《단군》의 의미와 지위는 《하늘의 임금》과 《지상의 임금》이라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게 된다.

13세기 일연이나 리승휴가 생존하던 시기에는 《단군기》와 《단군본기》가 다 전해지고 있었다. 일연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주로 《단군기》를 리용하였다면 리승휴는 《제왕운기》를 지으면서 《단군본기》를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고조선의 건립자를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고 하였으나 《제왕운기》에서는 《단군》(檀君)이라고 하였다.

후세의 학자들은 리승휴의 《제왕운기》를 긍정적으로 대하였지만 일연의 《삼국유사》는 내세우지 않았다. 그것은 일연이 중이었고 《삼국유사》에 불교적인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1675년 3월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규원사화》(揆園史話)에서는 《삼국유사》에 대하여 중들이 《억지로 끌어다 붙이고 억측하여 만든》* 기록이라고 하였다.

* 《중들의 기록은 흔히 억지로 끌어다 붙이고 억측하여 만든데서 나온것이다.》(繼流所記 多出於牽強傳會 臆爲之說者也)(《규원사화》 41.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주체98(2009).)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인들은 불교를 배척하는 관점에서 일연과 《삼국유사》를 대하면서 리승휴의 《제왕운기》를 내세웠다. 그리하여 서거정(1420-1488)의 《필원잡기》와 《세종실록》의 지리지 등에서는 모두 《제왕운기》의 기록을 따라 단군을 《檀君》으로 표기하였다.

후세의 문인, 학자들은 단군을 《檀君》으로 표기한 조건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보려고 하였는데 《규원사화》(41~4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였다.

《대개 신시씨가 이미 박달나무아래에 내렸고 환검신인이 후에 박달나무아래에서 임금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그러므로 그대로 나라이름을 삼았으니 <단군>이라는것은 박달나라의 임금이다.》(蓋神市氏已降於檀木之下 而桓儉神人後踐祚於檀樹下 故因以爲國名 則檀君者檀國之君也)

《규원사화》에서는 《檀君》을 《박달나라의 임금》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檀》을 나라이름으로 인정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檀》을 나라이름으로 인정하는 견해는 그후 사회적으로 공인되었다.

실학파학자였던 리익(1681-1763)은 《단군》을 해석하면서 《단》을 나라이름*이라고 하였다.

* 《단군의 후예가 도읍을 당장경으로 옮겼는데 당장경은 문화현에 있으나 그대로 <단군>이라고 불렀으니 <단>은 나라이름이다. <통고>(마단립의 《문헌통고》를 말함-인용자)를 살펴보면 단궁이 락랑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박달은 활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니 나라이름으로 명명한것이였다.》(檀君之後遷都唐藏京 唐藏在文化縣 而猶稱檀君 則檀是國號 按通考檀弓出樂浪 檀非造弓之材 則以國號名也)(《성호새설류선》 권1 하 《화녕》)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단군》을 《檀君》으로 표기한 문헌이 있었고 일연은 그것을 리용하였다.

《단군》을 《檀君》으로 표기한 문헌은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고 볼수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우리 나라 책인 《고기》 즉 《단군기》에 앞서 《위서》(魏書)를 인용하였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천년전에 단군왕검이 있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 왕검조선)

《위서》에서는 명백히 《단군》을 《壇君》이라고 밝혀냈다. 일연이 우리 나라 책인 《고기》 즉 《단군기》에 앞서 《위서》를 인용한것은 그의 세계관상제한성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 나라 문헌인 《고기》와 마찬가지로 《단군》을 《壇君》으로 기록한 문헌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던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위서》에 대해 의문을 가지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해지는 위(魏)나라 역사책들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기때문이었다.

위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으로는 현재 진수(223-297)의 《삼국지》의 《위서》와 위수(506-572)의 《위서》 그리고 어환의 《위략》(魏略)이 있을뿐이다. 중국 삼국시기 위나라(221-265)의 역사책인 《삼국지》의 《위서》나 어환의 《위략》, 북위(北魏)의 역사를 기록한 《위서》에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나라의 역사책으로는 이밖에도 손성의 《위씨춘추》(魏氏春秋) 20권, 위담의 《후위서》(後魏書) 100권, 행충의 《위전》(魏傳) 60권 등이 있어 11세기말경 우리 나라에 퍼졌었다.(《고려사》 권10, 선종 8년) 이러한 책들은 모두 위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들이었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것들이다. 그러나 13세기에 생존한 일연은 이상과 같은 책들 가운데서 고조선관계자료를 찾아볼수 있었을것이다.

일연이 《삼국유사》편찬에서 리용한 《위서》는 남북조시기 북위(386-534)의 역사책들 가운데서 하나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운중(雲中)에 도읍을 정하고 오늘의 황하이북지역을 장악하였던 북위는 150여년간 고구려와 이웃하고있었는데 당시는 고구려가 강대한 국력을 떨치며 영토를 넓히였던 시기이다. 북위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 《위서》였는데 위수(魏收)가 《위서》를 편찬하기 이전에 이미 북위의 역사를 서술한 책으로는 등연(鄧淵)의 《대기》(代記) 10여권과 최호(崔浩)의 편년체 《위서》 그리고 리표(李彪), 최광(崔光) 등이 편찬한 기전체 《위서》 등이 있었다. 그것을 후에 북제사람인 위수가 종합하여 114권으로 된 《위서》를 다시 편찬하였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위서》이다.

《삼국유사》를 편찬할 당시 일연은 위수가 《위서》를 편찬하면서 리용한 책들도 볼수 있었을것이다. 《대기》는 대체로 탁발규가 집권하기 전의 사실을 기록한 책이었으니 여기에는 단군조선의 역사를 서술한 내용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일연은 《위서》에 반영된 고조선력사에 대한 내용을 《삼국유사》에서 간접전달의 방법으로 옮겨놓았는데 그것은 곧 《단군왕검》(壇君王儉)이 있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는것이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기록인 《고기》 즉 《단군기》에서 단군의 마지막시기의 생활 다시말하여 평양에서 도읍을 아사달로 옮긴이후의 이야기와 같은것이였다.

일연은 《위서》에 올라있는 《壇君》이라는 표현이 《단군기》의 기록과 같으므로 그것을 옮

겨놓아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리용하였던것이다.

따라서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단군》을 《檀君》으로 표현한것은 착오가 아니었으며 당시 국내외에 전해지고있던 여러 역사책들에도 이렇게 표기되어있었던것이다.

2.3. 《단군》의 의미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고기》나 《위서》의 내용에서 《단군》을 《檀君》으로 표기한것을 잘못된 기록이라고 부정할 리유는 없다.

현재 전해지는 단군관계자료들인 《단군기》(檀君記)나 《단군본기》(檀君本記)는 다 각각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편찬된 역사책들이었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지난 시기 어떤 학자들은 두가지 기록을 다같이 긍정하는 방향에서 그것을 해설하려고 하였다. 실례로 《응제시주》(應製詩注)에서는 환웅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삼국유사》의 《고기》를 그대로 인용하여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의 신단(神壇)나무아래에 내렸으니 이것을 환웅천왕이라 하였다.》(率徒三千 降於太白山神壇樹下 是謂桓雄天王也)라고 하였고 부루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단군기》를 옮겨놓았다. 그러면서도 《단군》에 대하여서는 《檀君》이라고 표기하였는데 그것은 《환웅》의 《환》(桓)을 간혹 《단》(檀)이라고 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 《是謂桓雄天王也 桓或云檀》(《응제시주》)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규원사화》의 견해와는 다르다.

《檀君》과 《檀君》의 표기자료에 대한 리해를 깊이있게 하려면 《삼국유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고기》의 자료에 토대하여 환웅이 땅우에 내려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썼다.

《(환웅)이…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정 신비로운 단의 나무아래에 내렸는데 그것을 일러 <신불>이라고 하였다. 이를 환웅천왕이라고 하였다.》(桓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之桓雄天王也)(《삼국유사》 권1 《고조선》 왕검조선)

《응제시주》에서는 이 자료를 인용하면서 《太伯山》을 《太白山》이라고 썼고 그곳을 《지금의 평안도 희천군 묘향산》이라고 하였는데 일연도 《곧 태백(太伯)이니 지금의 묘향산》이라고 하였다. 결국 《응제시주》에서는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고기》를 그대로 따왔던것이다.

우에서 인용한 《고기》의 기록에 의하면 환웅이 땅우에 내려온 고장은 《태백산정의 신비로운 단의 나무아래》이며 그곳은 곧 《신불》이라고 이르는 장소였다.

지난날에는 《神市》을 《신시》로 잘못 읽었다.

현재 전해지는 문헌기록에 의하면 《神市》을 《신시》로 읽은 첫 사람은 권문해(1534-1591)였다고 할수 있다. 그는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을 편찬하면서 《神市》을 《신시》로 인정하고 올림말을 편성하면서 레문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았었다.

지난날의 문헌들에서도 《市》를 《시》로 잘못 리해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市》의 음은 《시》가 아니라 《불》이다. 실례로 《사기》의 본기에는 《徐市》이라는 인명이 있는데* 열전에서는 그것을 《徐福》이라고 하였고 그것을 《사기정의》(史記正義)에서

도 《徐福》이라고 썼다.* 이것은 《市》의 음이 《시》가 아니며 이 글자가 《福》과 음이 같거나 비슷하다는것을 말해준다.

* 《齊人徐市等上書言 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方丈瀛洲 僊人居之》(《사기》권6 진시황기 28년)

* 《使徐福入海 求神異物》(《사기》권118 렬전 58)

《秦始皇使徐福 將童男女 入海求仙人》(《사기》권6 주해)

《집운》(集韻)에 의하면 《市》의 음은 《불》(分物切) 또는 《발》(普活切)이다. 따라서 《市》를 《불》로 읽어야 《福》(복)과 음이 비슷한것으로 된다. 이에 대하여 후세에 《사기》의 내용을 고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市〉, 한나라때에는 반절이 없어서 다만 음이 서로 가까운것으로 그아래에 주해를 달았던것인데 뒤날사람들이 〈市〉을 시전의 〈市〉로 읽었다.》(우와 같은 책)

《市》를 《시전》(市廛)의 《시》로 읽는것은 뒤날사람들의 잘못이었다. 《市》은 《福》과 음이 서로 비슷하기때문에 서로 아울러썼던 글자이다.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고기》에 쓰인 《神市》의 《市》도 《불》, 《발》로 읽어야 할 글자였다.

《神市》 즉 《신불》 또는 《산발》은 고대 우리 말에 대한 리두식표기로서 《始林》, 《柴原》, 《始足》 등의 표기변종을 가지고있었다. 신라때의 고장이름인 《始林》이나 고구려의 동천왕의 무덤이 있다고 한 《柴原》 그리고 평양시 삼석구역 로산리일대의 옛 이름인 《始足》은 같은 우리 말을 리두식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한 표기변종들이다. 《始林》, 《柴原》, 《始足》*은 곧 《수풀》의 의미를 나타내는 우리 민족의 고유어를 리두식으로 표기한것으로서 《神市》와 같은것이다.

* 《포공이 밤에 월성서쪽마을로 갔더니 시림가운데서 커다란 밝은 빛이 보였는데 붉은 구름이 있어 하늘로부터 땅에 드리웠고 구름속에 황금궤가 있어 나무가지에 걸려있었다.…또한 흰닭이 나무밑에서 울고있었다.》(瓠公夜行月城西里 見大光明於始林 有紫雲從天垂地雲中有黃金? 掛於樹枝…亦有白鷄鳴於樹下)(《삼국유사》 권1, 《김알지 탈해왕대》)

* 《21년 봄 2월 왕이 환도성은 란리를 겪었으므로 다시 도움으로 할수 없어서 평양성을 쌓고 백성들 및 종묘사직을 옮겼다.…22년…가을 9월에 왕이 죽으니 시원에 장사지내었다.》(二十一年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二十二年…秋九月王薨 葬於柴原)(《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 《시족면(始足面):현재의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 상석리, 성문동, 호남리와 통성구역의 대천동, 명오동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있던 옛면》(《조선지명사전》 6 43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

《始足》과 《徐伐》은 한 대상을 가리키는 우리 말에 대한 서로 다른 표기이다. 《始》와 《徐》는 음이 서로 비슷하며 《足》의 뜻은 《伐》의 음과 비슷하다. 다시말하여 《始足》(시불, 시발)과 《徐伐》(서벌)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우리 말에 대한 서로 다른 형태의 리두식표기이다.

일연은 《徐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지금 세속에서 〈京〉자를 풀이해서 〈서벌〉이라고 이른다.》(今俗訓京字云徐伐)(《삼국유사》 권1, 《신라시조 혁거세왕》)

이상과 같이 《神市》, 《始林》, 《柴原》, 《始足》 등은 모두 《徐伐》와 같은 말에 대한 서로 다른 리두식표기이고 그것은 곧 《수풀》을 의미하는 옛날 우리 말에 대한 표기였으며 그것은 뒤날에 한자 《京》의 뜻에 해당하는것이였다.*

*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3 81~83. 주제99(2010).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기》에서는 환웅이 땅우에 내려온 곳이 《신비로운 단의 나무아래》(神壇樹下)이며 여기가 《神市》였고 환웅을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여기서 《신비로운 단의 나무아래》는 《삼국사기》에서 닭이 울었다는 《나무아래》(樹下)와 방불하다.

한편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에서는 《신비로운 박달나무아래》(神檀樹下)이며 그가 《단웅천왕》(檀雄天王)이라고 하였다.

《응제시주》에서는 이 두가지 기록을 합리적으로 해설하기 위하여 《환(桓)은 간혹 단(檀)으로도 쓴다.》고 하였다. 《응제시주》의 견해대로 한다면 《환웅》(桓雄)은 곧 《단웅》(檀雄)이며 《단군》(檀君)은 또한 《환군》(桓君)이다.

《응제시주》에서는 《檀》자의 뜻에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다. 한자의 의미로 보면 《桓》은 《모감주나무》를 의미하며 《檀》은 《박달나무》를 가리킨다.

고조선의 사회상을 리해하는데 진국의 력사자료가 일정한 참고로 된다고 본다.

고조선과 진국은 다같이 우리 민족의 고대국가들이였다. 진국의 령토에 해당하는 지역은 한때 단군조선의 령역이였다. 이에 대하여 《제왕운기》에 인용한 《단군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름을 단군(檀君)이라 하였는데 조선의 지역을 차지하고 왕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시라, 고례,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와 맥은 다 단군의 령역이였다.》(…名檀君 據朝鮮之域爲王 故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皆檀君之壽也)(《제왕운기》 하)

여기서 《시라》(尸羅)는 신라이고 《고례》(高禮)는 고구려를 가리킨다. 결국 단군조선시기에는 고구려나 신라가 다 하나의 정치적세력권에 속해있었다. 따라서 진국에 존재한 풍습 또는 사회적의식은 기본적으로 고조선과 같았을것이라고 인정해야 할것이다.

진국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가 고정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소도》(蘇塗)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가리켜 《천군》(天君)이라고 하였다.*

* 《귀신을 믿어 국읍에서 각각 한사람을 선정하여 하늘에 제사하는것을 주관하게 하고 이름을 천군이라고 한다. 또 모든 국에는 각각 별읍이 있어 이름을 소도라고 하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고 귀신을 섬긴다.》(信鬼神 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삼국지》 위서 권30 《한》)

진국에서 소국들에 있는 《소도》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선정된 고장이였으며 거기에는 반드시 큰 나무가 있어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큰 나무》는 《신비로운 단의 나무》(神壇樹) 또는 《신비로운 박달나무》(神檀樹)를 련상하게 하며 그리고 환웅이 내린 장소인 《神市》는 진국의 제천장소인 《소도》와 같은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진국의 《소도》에 대하여 20세기초 역사학자인 신채호(1880-1936)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고대조선인이 매양 거주지부근 산림에 나아가 이를 <수두>라 이름하고 수두의 중앙에는 큰 나무를 세워 <수두나무>라 이름하여 천신을 제사하였나니 <수두>는 신단(神壇)의 뜻이니 지금까지 각도의 산중인민들이 오히려 신단을 제사하니 이는 그 유속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신채호유고》 조선사, 제1편)

신채호는 《수두》 즉 《소도》는 《신단》(神壇)이라고 명백히 말하였다. 《소도》에는 반드시 큰 나무가 있어야 하였는데 이것은 고조선시기의 《신비로운 단의 나무》(神壇樹)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세나라초기 신라, 가야 등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장소가 고정되어있었다는것과 수풀이나 나무를 숭배한 자료들이 보인다. 실례로 신라에서는 신에게 제사지내는 장소가 지정되어있었다.(《삼국사기》 권32 제사) 그리고 신라의 시조라고 하는 혁거세는 《양산기슭의 라정결 숲사이》(楊山麓蘿井傍林間)(《삼국사기》 권1)에서 태어났고 김알지는 《금성의 서쪽 시림의 나무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었는데…금빛의 작은 꾀가 나무가지에 걸려있고 흰닭이 그아래에서 울었다.》(金城西始林樹間 有鷄鳴聲…有金色小鵲掛樹枝 白鷄鳴於其下)(우와 같은 책)고 하였다. 이것은 일정한 고장, 숲 또는 나무와 관련시켜 만들어진 설화들이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서 이야기한 구지*와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서 말하는 라정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지정되었던 고장일것이다.

* 《거처하는 고장의 북쪽 구지에서 수상한 소리와 기미가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기에 2~3백명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所居北龜旨有殊常聲氣 呼喚衆庶 二三百人集會於此)(《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

신채호가 《신성한 구역》으로서 《신단》(神壇)을 《소도》라고 하였던것은 이상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제기한 주장이었다.

《신성한 구역》은 수풀, 나무와 관련이 있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신비로운 사변들이 일어나는 곳이었다.

신라는 진국의 진한지역 사로국에서 생겨난 나라였다. 따라서 신라의 초기사실들은 진국때의 유습을 그대로 따른것이었다고 인정해도 될것이며 신라초기의 《시림》은 진국의 사로국의 제천장소들중의 하나였다고 보아도 될것이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시림》은 수풀에 해당하는 우리 말에 대한 리두식표기였다.

고대 또는 중세초기에 사람들은 출중하다고 인정되는 인물의 출생을 수풀 또는 신단(神壇)과 관련시켜 이야기하였다.

환웅의 출생과정도 이러한 생활과 결부시켜 《태백산》마루의 《신비로운 제단》(神壇)의 나무아래에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환웅천왕》이라고 불렀다고 설화적으로 이야기되었던것이다.

이것은 신라에서 혁거세나 김알지의 출생, 가락국에서 수로왕의 출생과정과 매우 류사하다.

한편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에서는 환웅이 《신비로운 박달나무》인 《神檀》의

아래에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를 《단웅천왕》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박달나무》는 진국에서 소도에 세우던 《큰 나무》, 신채호의 표현을 리용하면 《수두나무》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삼국유사》에서 《단군》을 《壇君》으로 본것은 신비로운 제단인 소도를 표징으로 하여 지어부른 이름이며 《제왕운기》에서 단군을 《檀君》이라고 한것은 《큰 나무》 즉 《수두나무》를 표징으로 하여 지어부른 이름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의 옛 문헌인 《단군기》는 제단을 표징으로 부른 《단군》(壇君)에 대한 기록이고 《단군본기》는 제단의 나무를 표징으로 하여 부른 《단군》(檀君)에 대한 이야기였다. 따라서 단군을 《壇君》, 《檀君》으로 쓴것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두가지 명칭에 불과한것이었다.

그러면 《군》(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날 연구자들은 《군》을 무조건 《임금》으로 인정하려 하였다. 그래서 《박달임금》 또는 《지군》이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었다.

한자 《君》은 반드시 임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君》은 《무릇 령토를 소유한자는 모두 <군>이라고 한다.》(《강희자전》)라는 해석외에도 《신을 공경하여 부르는 칭호》(《수경주》)와 《선조》(《시전》), 《우두머리》(《사기》집해), 《주재자》(《회남자》) 등 여러가지 뜻이 있다. 상대방을 존대하여 부르는 말로서의 《군》은 근대에도 쓰이였다.

진국에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천군》(天君)이라고 한것도 《군》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실례의 하나이다. 따라서 《壇君》이나 《檀君》의 《君》도 반드시 《임금》으로만 해석해야 할 까닭은 없다. 진국의 《천군》은 명백히 제천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에 대한 칭호였다.

그러므로 《壇君》은 제단을 주관하는 사람을 존대하여 가리키는 말이며 《檀君》은 제천의식을 진행하는 장소의 《큰 나무》를 주관하는 사람을 존대하여 부른 칭호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큰 나무》를 주관하는 사람이란 결국 제천의식때에 북과 방울을 달고 의식을 진행하는 제천의식의 담당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북이나 방울을 현대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구《삼국사》의 기록에 의하면 건국초기 고구려는 비류국의 북을 지혜로 빼앗아다가 나라의 위용을 떨치였다고 하였다.(《동국리상국집》 권3 《동명왕편병서》) 그리고 고구려의 남진을 반대하여 극력 애쓰던 락랑국이 무기고에 보관하였던 북과 나팔이 파괴되어 마침내 고구려에 귀속되었다고 한 설화적인 이야기(《삼국사기》 권14 대무신왕 15년)도 고대 또는 중세초기에 북이나 나팔, 방울 같은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고대사회에서 제천의식의 담당자, 신을 위하는 제사의 담당자는 임금 못지 않게 존대를 받았고 신관은 곧 임금 즉 통치자로 되었던 경우가 없지 않다. 그만큼 제천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통치자의 하나였다.

초기봉건소국의 하나였던 신라에서는 두번째 임금이라고 하는 남해가 신관의 의미로 명명되였었다. 《삼국사기》에서는 남해를 《차차웅》 또는 《자충》으로 불렀다고 하면서 그 의미를 후기신라사람인 김대문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차차웅은 간혹 자충이라고 하는데 김대문이 이르기를 방언으로 무당을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무당으로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들기때문에 두려워하고 공경하였는데 드디어 존

장자를 일컬어 자충이라 하였다.》(次次雄 或云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 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爲慈充)(《삼국사기》 권1 남해차차웅)

《차차웅》, 《자충》은 의미적으로 보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었으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의미는 《존장자》였고 통치자, 임금이었다. 이것은 남해가 이미 봉건소국으로 되었던 신라에서 신관으로서 최고권력자, 임금으로 되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삼국유사》에서 단군을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고 하였고 고조선을 《왕검조선》(王儉朝鮮)이라고 하였으나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에서는 《사내를 낳아 이름을 단군(檀君)이라 하였는데 조선의 지역을 차지하고 왕으로 되었다.》(生男名檀君 據朝鮮之域爲王)고 하였다. 《王儉》이란 《임금》을 한자음으로 표기한 우리 말이라는데 대하여서는 이미 학계에서 인정되었다. 결국 《檀君王儉》은 《제단의 주재자인 임금》을 의미하며 《檀君王儉》은 제사를 지내는 장소 또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의 신성한 나무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의 임금이라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단군임금》이라는 말은 임금을 두번 련달아 쓴것이 아니라 당시 제천의식의 주재자이면서 동시에 령토와 주민을 장악한 통치자라는 의미로 된다.

결국 《단군》이란 고유명사가 아니라 고조선시기 통치자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였다. 지난날에도 《단군》을 개별적인 사람의 이름이나 칭호가 아니라 고조선시기 통치자의 칭호로 인정하였던 경우가 없지 않다. 실례로 리암(1297-1364)이 편찬한것으로 알려진 《단군세기》(檀君世紀)에서는 전조선왕대 47대를 모두 《단군》이라고 표현하였다.

《삼국유사》의 《고조선》항목에 인용된 《단군기》에 실린 설화의 내용이나 《제왕운기》의 《단군본기》의 내용을 이와 같이 해설하면 당시의 사회형편으로 보거나 력사적사실, 어휘적 의미 그리고 전해지는 문헌기록의 내용으로 보아 타당할것이다.

한자 《檀》자에 방점을 두고 그의 현대적의미를 강조하면서 《단군》을 《박달임금》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밝은 임금》을 구상하고 그것을 다시 《태양의 후손》이라는 의미와 결부시키는것은 언어학적으로 보거나 원시 및 고대사회의 력사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수 없다.

고조선의 력사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첫 봉건국가였던 고구려에서는 통치자를 《군》으로 표기한 일이 없다. 진국에서는 통치자가 아니라 제천의식의 주관자를 《군》이라 하여 《천군》이라고 하였다. 한자의 의미로 따져본다면 《천군》(天君)이야말로 《하늘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것이나 진국의 《천군》은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였다.

현재 전해지는 문헌들가운데서 《단군》을 《박달임금》으로 처음 주장한것은 사실상 《규원사화》였다. 《규원사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단군〉이란것은 〈박달임검〉이다. …우리 나라 말로 〈檀〉을 일러 〈박달〉(朴達) 혹은 〈백달〉(白達)이라고 하고 군주를 일러 〈임검〉이라고 한다. 당시에는 한자가 없었기때문에 다만 〈백달임검〉이라고 하였을뿐인데 후세에 력사를 쓰는 사람들이 〈단군〉이라고 번역하여 놓았다.》(檀君者朴達壬儉…東語謂檀曰朴達 或曰白達 謂君曰壬儉 當時無漢字 故只稱白達壬儉 而後世述史者譯以檀君)(《규원사화》 단군기)

《규원사화》에서는 《단》을 나라이름으로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단군》을 《박달나라의 임금》이라는 뜻으로 해설하였다. 그래서 실학과학자 리익도 《단》을 나라이름으로 인정하였고 서거정(1420-1488)은 《단》이 고조선왕조에서 임금의 성씨라고 하였다. 《필원잡기》 권1 이러한 기록들이 우리 나라의 원시 및 고대초기 여러가지 사회현실과 얼마만큼 부합되는지는 더 깊이 연구해보아야 할것이다.

3. 결론

민족고전 《삼국유사》의 《고조선》항목에 실린 《고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언어, 문학 등을 연구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오랜 옛적에 씌여진 글이고 전하여오는 과정에 일정하게 가공된것으로 하여 옛날의 어떤 생활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것을 오늘날에 와서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는데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있다.

론문에서는 지난 기간의 연구성과를 종합한데 기초하여 주체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삼국유사》의 《고조선》항목에 실린 《고기》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고대시기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참고가 되도록 하려고 하였다.

우리 나라 고대사회의 생활면모와 계급사회로 이행하던 시기의 사회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삼국유사》의 《고조선》항목에 실린 《고기》의 내용을 보다 깊이 연구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을 밝혀내야 한다. 실례로 《삼국유사》의 《고조선》항목에서 《고기》의 자료는 어디까지이며 그것이 어떤 문헌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리용하였는가, 《삼위태백》, 《태백산》은 무엇을 의미하며 지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곳을 가리키는것인가, 곰과 범이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21일간 《기》하였다는것은 어떤 생활을 반영하였는가, 그리고 단군의 통치기간과 생존년대가 다른 문헌들과 현저하게 다르게 기록되어있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 등도 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론과 풍부한 사료에 토대하여 단군관계기록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설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과학적으로 빛나게 서술하여야 할것이며 그것이 오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단군, 《단군기》, 《단군본기》, 《고기》